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오재식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404번지 가원빌딩 4층 전화/796-8364 팩스/793-4745 | 천리안 하이텔 나우콤/PSPD

수신 각 언론사 문화부(학술) 담당자님

발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보담당:김정선:796-8364)

제목 안경환, 박원순, 사법감시센터 공동출판기념회 취재요청의 件

날짜 1996. 1. 29.

보 도 자 료(정정)

안경환 · 박원순 · 사법감시센터 공동출판기념회

바른 법을 생각하며...

1996.1.31(수).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1. 바른 언론을 위해 힘쓰고 계신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참여연대에서는, 평소 바른 법의 실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安京煥 교수(서울대 기획실장, 법학,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朴元淳 변호사(참여연대 사무처장), 사법감시센터(소장 朴恩正 이대교수) 등 세명의 법률가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공동출판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3. 이 행사에는 법조계의 명망있는 인사들이 함께 모여 바른 법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참석자는 高學均(서울대 농대학장), 金重培(인론인, 참여연대 공동대표), 金昌國(변호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참여연대맞은사회만들기 본부장), 金昌俊(변호사), 朴婉緒(소설가), 朴元淳, 朴恩正, 鮮宇仲皓(서울대 총장직무대행), 愼鏞厦(서울대 사회학 교수), 安京煥, 李敎再, 張琪杓(민주당동작갑 지구당위원장), 車炳直(변호사), 韓勝憲(변호사) 등입니다. 본 행사에서 얻어지는 모든 수익은 참여연대의 기금으로 쓰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송창식(가수) 씨와 양희은(가수)씨가 본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함께 합니다.
3. 출판회에 올리는 도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경환, 『그래도 희망을 버릴 수 없다』, 철학과 현실사
『판사가 나라를 살린다』, 철학과 현실사
박원순, 『아직도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일본의 전쟁범죄 연구』, 한겨레 신문사
『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한국 현대사의 과거청산 연구』, 한겨레 신문사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사법개혁』, 박영물
4. 출판회의 순서
진행 / 오숙희(방송인)
모시는 말씀/ 김중배(참여연대 공동대표)
축하의 말씀/ 고학균(서울대 농대 학장), 이효재(정대협 대표), 한승헌(변호사)
저자의 말씀/ 안경환, 박은정, 박원순
축하의 노래/ 송창식(가수), 양희은(가수)